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10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시진핑, 김정은에 7년 전 방북 땀 없던 감사전문 보내 “다시 만나길 기대”...북·중 관계 격상 과시	국제	
2	디자이너 퀸 진, 트랜스젠더 첫 토니상	문화	

(1)기사/뉴스요약

1박 2일의 국빈 방북 일정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 전문을 보내고 “중·조 관계는 이미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2019년 6월 방북 직후에는 별도의 감사 전문을 보내지 않았다. 북·중 관계 격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시 주석이 전날 김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전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전문에서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국가 방문이 성과적으로 끝난 것과 관련해 중국 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해 그리고 나와 나의 부인 평리위안 교수의 이름으로 총비서 동지(김 위원장)와 리설주 여사에게 그리고 조선 당과 정부, 인민에게 가장 따뜻한 인사와 가장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나와 총비서 동지가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일련의 중요한 공동 인식을 이룩”했다며 이는 “중·조 관계에 새로운 시대적 내용을 더해주었으며 중·조 쌍방이 전통적인 친선을 빛내이고 발전과 번영을 함께 촉진하며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나는 방문 성과에 대해 만족하게 생각한다”며 “총비서 동지와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조 친선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영원히 푸르청청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1박 2일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전날 귀국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직전 방북인 2019년 6월 당시에는 귀국 이후 이와 같은 감사 전문을 보내지 않았다. 북·중 관계 밀착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과 함께 중국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의 감사 전문은 이날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5면 상단에도 게재됐다.

북한 매체들은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을 통해 북·중 관계가 격상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통신은 양국 정상이 “역사적인 평양 상봉”을 통해 “전통적인 조·중친선 관계를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의 본보기적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실 확고부동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보다 4개 면을 늘린 총 10개 면의 특집호를 발행한 노동신문은 이날 전체 6개면 중 5면에 걸쳐 시 주석 방북 관련 소식을 전했다.

요약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일정을 마무리하며 감사 전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전문에서 방문 성과에 만족하게 생각한다며 중·조친선이 대를 이어 발전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주석이 지난 2019년 방문 직후와는 달리 감사 전문을 보낸 것을 두고 북·중 관계 격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기사/뉴스요약

브로드웨이 의상 디자이너이자 사회운동가인 퀸 진이 뮤지컬 <캐츠: 더 젤리클 볼>로 토니상을 받았다. 공개적으로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인물로서는 첫 토니상 수상이다. 진은 7일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제79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캐츠: 더 젤리클 볼>로 뮤지컬 부문 의상 디자인상을 받았다.

<캐츠: 더 젤리클 볼>은 뮤지컬 ‘캐츠’를 드래그(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의상·화장·행위 등으로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화예술의 장르) 스타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퀸 진은 거대한 표범 무늬 핸드백 등 액세서리를 포함해 총 500벌의 의상을 제작했다. 각각의 의상에는 트랜스젠더 운동의 선구자였던 실비아 리베라, 마샤 P 존슨 등에 대한 오마주가 새겨졌다.

2016년 뉴욕대학교에서 의상 디자인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그 후 10년 동안 오비상, 헨리 휴스 디자인상, 드라마 데스크상, 루실 로텔상, 뉴욕 드라마 비평가협회 특별상 등 연극 디자인상을 휩쓸며 이름을 날렸다. 지금까지 의상을 디자인한 연극·공연은 80편이 넘는다. 뉴욕타임스는 “그는 로켓처럼 빠르게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진은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이자 ‘흑인 트랜스젠더 해방’이라는 단체의 설립자다. 이 단체는 매년 최대 1만5000명의 트랜스젠더 등 소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일자리 알선, 주거 지원, 상호부조 활동 등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 활동을 펼쳐왔다.

진은 이날 자신이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고 시상식에 참석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수상이 개인의 영예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들이 무대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퀴어, 트랜스젠더들의 유산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방식으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금 세계는 수많은 문제와 심각하게 싸우고 있다. 우리는 함께할 때 진정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요약 : 브로드웨이 의상 디자이너이자 사회운동가인 퀸 진이 토니상을 수상했다. 브로드웨이 의상 디자이너이자 사회운동가인 퀸 진은 공개적으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인물로서는 첫 토니상에 이름을 올렸다. 퀸 진은 뮤지컬 ‘캐츠’를 드래그 스타일로 재해석한 뮤지컬 <캐츠: 더 젤리클 볼>에서 총 500벌의 의상을 제작했다. 진은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수상이 개인의 영예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들이 무대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순환매	어떤 종목에 호재가 발생해서 투자자가 몰려 주가가 상승하면, 그 종목과 관련있는 종목도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순환적으로 매수를 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이를 순환매라 한다	시사경제 용어사전
2	마나피카 후마니타스	교황 레오 14세가 즉위 후 처음으로 발표한 회칙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핵심 주제로 하고 있다.	시사상식사전